

완벽 수비에 결승골까지...뮌헨 김민재 “폼 미쳤다”

전반 세트피스 헤더로 선제골로 PSG에 1-0 승...UCL 데뷔골 이강인 후반 20분 교체 투입... ‘코리안 더비’ 13년 만에 성사

한국 축구 대표팀의 대체 불가 센터백 김민재가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데뷔골을 썼다.

김민재는 27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지 5차전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8분 세트피스 헤더 선제골을 뽑아내며 뮌헨의 1-0 승리에 앞장섰다.

왼쪽에서 골라인에 바짝 붙어 올라온 코너킥을 상대 골키퍼가 제대로 편향해내지 못하자 문전에서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김민재의 UCL 무대 데뷔골이다.

2021년 페네르바체(터키) 유니폼을 입고 유럽에 진출한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A, 분데스리가에서는 간혹 골 맛을 봤으나 클럽대항전에서는 공격포인트를 올린 적이 없었다.

리그에서만 1골을 기록 중이던 김민재의 올 시즌 2호 골이기도 하다.

지난달 6일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던 김민재다.

본업인 수비에서도 흡집을 데가 없었다.

초반부터 뮌헨의 기세에 눌린 PSG가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김민재는 후반 5분 최전방까지 달려 나온 상대 측면 수비수 누누 멘데스에 향하는 패스를 뒷발로 끊어내는 등 상대 공격의 길목을 차단하는 빼어난 위치선정으로 뮌헨의 무실점 승리에 기여했다.

후반 11분 PSG 공격수 우스만 뎀벨레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승부의 추는 뮌헨 쪽으로 더 기울었다.

전반에 과도하게 항의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은 뎀벨레는 역습에 나가려던 뮌헨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깊은 태클을 걸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았다.

패배 위기에 몰린 PSG는 첫 교체 카드로 후반 20분 워렌 자이르메레리 대신 이강인을 투입했다.

이강인은 간간이 날카로운 원발 킥으로 뮌헨을 긴장케 했으나 수세의 흐름을 바꾸진 못했다.

김민재와 이강인 모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 선수가 UCL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 건 2011-2012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의 박지성과 FC바젤(스위스) 박주호 이후 13년 만이다.

뮌헨은 후반 29분 저발 무시알라의 결정적 슈팅이 골키퍼 마르베이 사포노프의 손끝에 걸리면서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와 한 점 차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중요 휘슬이 울리자 뮌헨의 베테랑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는 김민재를 안아 들어 울리며 고마워했다.

공식전 7경기 무실점 연승을 기록한 뮌헨은 UCL 리그 페이지에서 11위(승점 9)로 올라섰다.

PSG는 토너먼트 진출이 불가능한 26위(승점 4)로 내려앉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27일 독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리그 페이지 5차전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38분 선제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아산·이랜드, 창단 첫 K리그1 승격 도전

대구·전북 '생존 싸움' 나서

“창단 첫 K리그1(1부리그) 승격에 도전한다!” 쉽게 오지 않는 기회다. 자신감이 넘쳤을 때 기회를 잡아야만 ‘꿈의 1부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창단 이후 첫 1부리그 승격의 기회를 잡은 K리그2 충남아산과 서울 이랜드는 “오직 승리!”만을 외치고 있다. 2부 강등의 위기에 몰려 의기소침해진 대구FC와 전북 현대는 잔혹한 1부 생존 싸움에 나선다.

“2024 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는 K리그 11위 대구와 K리그2 2위 충남아산(28일 오후 7시 천안종합운동장·12월 1일 오후 2시 DGB대구은행파크), K리그 10위 전북과 K리그2 PO를 뚫은 이랜드(12월 1일 오후 4시 목동종합운동장·8일 오후 2시 20분 전주월드컵경기

장)의 대진으로 치러진다.

◇5시즌을 갈고 닦은 충남아산 vs 2013년 악몽을 막으려는 대구

충남아산은 올 시즌 36경기에서 60득점·44실점으로 골 득실+16을 기록, 올 시즌 3위를 차지한 이랜드(승점 58·골 득실+17)에 이어 골 득실 부문 2위를 달리며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과시했다.

승강 PO에서 가장 기대받는 충남아산의 골잡이는 브라질 출신 주닝요다. 그는 올 시즌 전 경기(36경기)에 출전해 12골 8도움의 맹위를 떨쳤다. 이에 맞서는 대구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정규리그에서 승점 40을 기록, 2부로 다이렉트 강등된 ‘꼴찌’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9)와 승점 1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점(52골)은 인천(49골)보다 많다.

1부 생존을 위한 대구의 ‘믿음맨’은 올 시즌 11

골 8도움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따낸 세징야다. 여기에 에드가(5골 1도움)와 요시노(5골 3도움) 등 외국인 선수들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첫 승격이나, 역대 첫 강등이나...이랜드 vs 전북

전북은 올해 단 10승(12부 16패)에 그치며 2012년 스플릿 체제 도입 이후 팀 최저 순위인 10위에 머물렀다. 티아고가 7골로 팀 내 득점 1위인 게 초라하기만 하다. 전북은 또 38경기에서 59골을 내주며 K리그1 최다 실점 속 창단 첫 강등의 위기를 맞았다.

이랜드는 K리그2에서 3위를 차지한 뒤 PO에서 전남 드래곤즈를 따돌리고 승강 PO 진출권을 따냈다. 올 시즌 62골을 몰아치며 K리그2 최다 득점을 기록한 이랜드는 실점도 45골로 막아 골 득실(+17) 수치도 13개 팀 가운데 가장 좋았다. /연합뉴스

류재선 광주시새마을회장, 대한씨름협회장 도전

류재선(사진) 광주시새마을회 회장이 대한씨름협회 회장직에 도전한다.

류 회장은 지난 26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전남씨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씨름연맹 부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류 회장은 “씨름은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스포츠로,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씨름인들의 처우와 복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씨름협회의 전문성과 재정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회장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 전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협회 회장과 광주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정부와 민간의 예산을 확보해온 경험을 통해 대한씨름협회가 처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씨름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대회 상금 대폭 인상 ▲유소년 발굴 및 우수 선수 육성 ▲지도자 처우 개선 ▲씨름의 대중화와 홍보 강화 등을 내세우며 “전국 시도 씨름협회와 협력해 씨름을 대중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씨름협회 회장 선거는 다음 달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역 축구인재 발굴’ 전남드래곤즈, 초당대 유경민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지역 축구인재 발굴 프로젝트로 초당대 공격수 유경민을 영입했다.

전남은 지난 6월부터 전남축구협회(신정식 회장)와 함께 프로팀 합동훈련, 체력테스트, 연습경기 등 총 4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좋은 피지컬과 활동량이 돋보이는 유경민을 최종 선발했다.

184cm, 75kg의 체격을 갖춘 유경민은 저돌적인 공간감투를 통한 유효슈팅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꿈에 그리던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힌 유경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다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왼쪽부터 전남드래곤즈 김규홍 대표, 유경민, 전남축구협회 이형준 부회장.

광주장애인체육회, 장애인선수 취업지원 협약

조선대·장애인고용공단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선수 취업 지원 사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조선대 산학협력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장애인체육선수 취업지원’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선대 본관 청출어름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상득 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용재 조선대 산학협력단장,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포함한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체육선수 채용 추진 및 취업 관

리체계 협조 지원 ▲기관 주최·주관 행사 초청 및 교류를 통한 협력기반조성 ▲기타 장애인체육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내년 1월까지 시장장애인체육선수 5명을 채용하고 향후 채용 확대에 힘 쓸 예정이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2년 전남대 산학협력단 14명을 시작으로 한전KPS 21명, 한국알프스 7명, 한국광기술원 3명 등 장애인체육선수 45명 채용 연계에 힘써왔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50명의 선수를 연계했으며 한국전력, 금호타이어 등 공공·민간기업 소속 장애인체육선수 채용을 추진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선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2024

11.17(수) - 12.1(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